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소비자심리지수, 10년 만에 최악
- CNNBusiness: AI 붐이 인플레 관리 어렵게 만드는 이유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중시 어제 하락후 약간 회복…오일 하락세
- WSJ: 미 국채 매도세 속에서 단기 채권 매력 부각

[오일]
- WSJ: 걸프만 원유 수출 회복에 유가 상승세 주춤

[인공 지능]
- Bloomberg: 대형 급식 기업들도 A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매출 증가 예상
- CNBC: 연방 하원의장 "AI 규제, 강제보다는 자율 준수 방식 원해"
- CNNBusiness: 엔비디아, AI 안전성 막는 '안전 플랫폼' 공개

[주택]
- Reuters: 미 단독 주택 가격 상승…내 집 마련 부담 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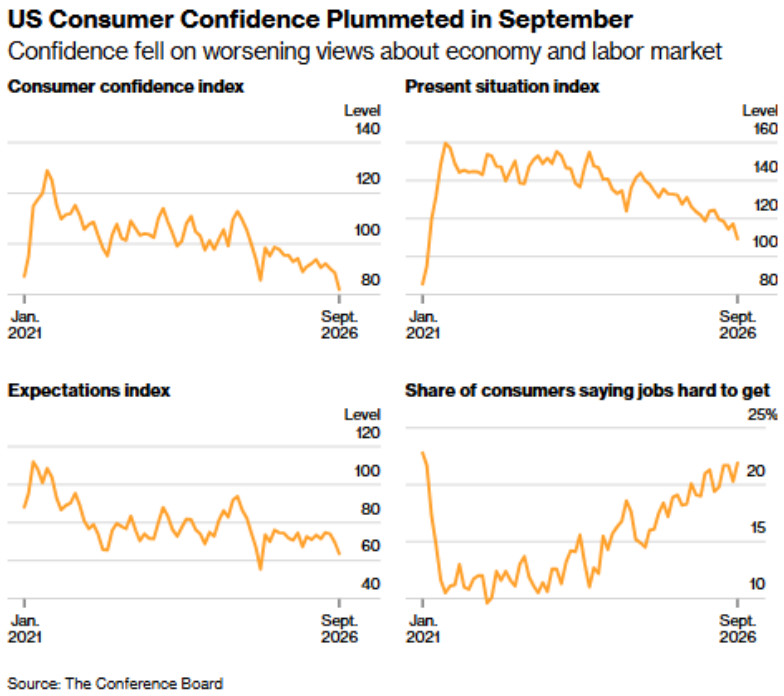
[KMI 공급망 브리핑]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onsumer Confidence Plunges to Lowest Level Since 2014
미 소비자심리지수, 10년 만에 최악

-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 속에 경제 및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9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2014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.
-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6.7포인트 하락한 81.9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(89)를 크게 밑돌았다. 현재의 여건 지수와 향후 6개월 전망 지수 역시 모두 급락했다.
- 생활비 부담은 가중됐으나 소비와 고용 시장은 여전히 버티는 모습이다.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서도 채용 호조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.



기사

CNNBusiness: Why the AI boom makes inflation harder to tame
AI 붐이 인플레 관리 어렵게 만드는 이유

- 미국 경제의 새로운 숙제는 역설적으로 과도한 견조한 상황 때문이다. 물가 상승과 국채 시장 상황은 경제 침체가 아닌 과열의 결과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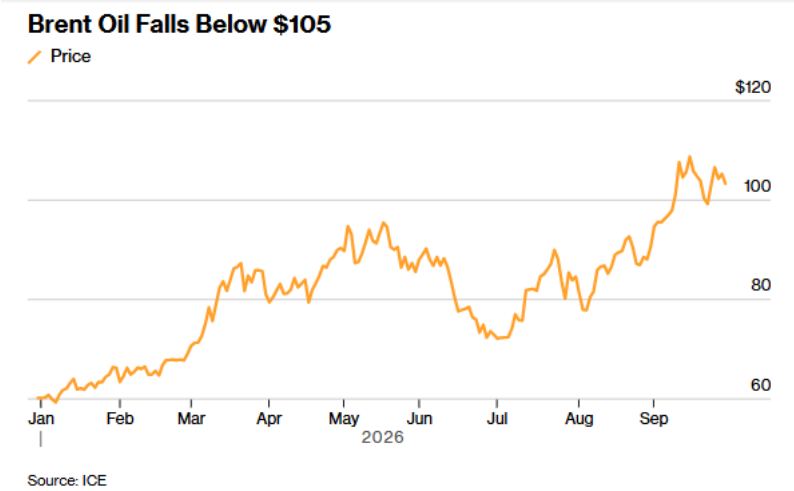
- 물가와 금리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은 전쟁 발 에너지 변동성, 무역 갈등, 그리고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다.
-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에 주목하고 있다.
- 향후 수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는 이미 낮은 실업률과 강한 소비 지출로 견조한 경제를 더욱 자극해 인플레 압력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Stocks Churn After Rout as Brent Falls Below $105
중시 어제 하락후 약간 회복…다시 하락...오일 하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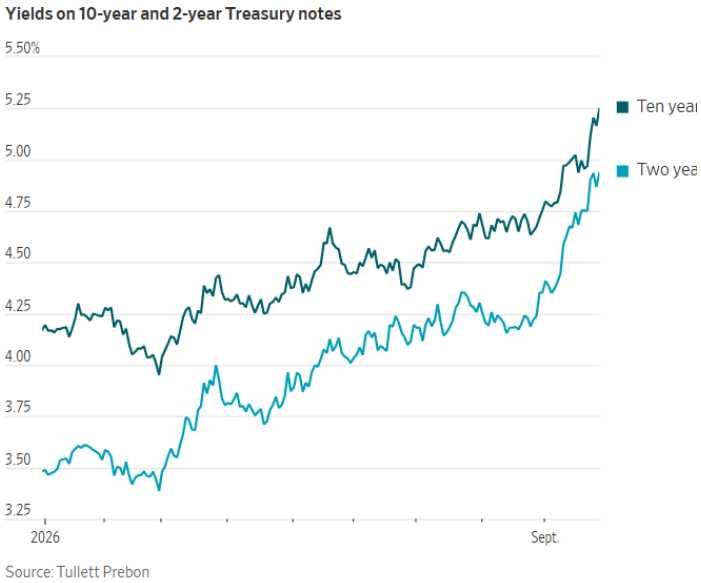
-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, 고유가가 인플레를 자극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월가의 불안은 여전하다.
- 한 달 만에 급락했던 S&P500 지수는 보합세에 머물렀다. 국채 매도세는 꺾였으나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2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.
- 최대 수출국 사우디의 주요 파이프라인 수송을 재개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달러 선으로 내렸다. 달러화는 소폭 올랐다.
- 현재 증시는 변동성이 하루중에도 큰 상황이다. 11:30am 현재 S&P 500과 나스닥을 01%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.



기사

WSJ: A Simple Way to Take Advantage of Higher Yields
미 국채 매도세 속에서 단기 채권 매력 부각

-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예측하기 힘든 혼란 속에서도, 단기 채권은 최소한의 충격 완화 장치를 제공하게 된다.
- 최근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.2%를 돌파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다.
- 그러나 단기 국채는 주식과 달리 정기적인 이자(쿠폰)를 받게 돼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.
- 이에 따라 금리 변동으로 원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최종 수익률은 플러스(+)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.



기사

[오일]

WSJ: Oil Prices Reverse Gains as Gulf Crude Exports Recover
걸프만 원유 수출 회복에 유가 상승세 주춤

-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, 중동발 원유 공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다시 하락했다.
- 이란이 “항구 봉쇄 풀어주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7일 동안 휴전하자 제안했지만, 트럼프가 이를 거절했다.
-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일일 약 350만 배럴 규모로 가동 중인 내륙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서쪽 얀부(Yanbu) 항구에서의 원유 선적을 재개했다.

기사

[인공 지능]

Bloomberg: Data Centers Create $3 Billion Opportunity for Catering Giants
대형 급식 기업들도 A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매출 증가 예상

- AI 데이터센터 열풍에 힘입어 식음료 제공부터 체육관, 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확대 중인 대형 급식 기업들이 3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.
- Aramark, Compass Group, Sodexo 등이 시장을 과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해당 매출은 데이터 센터 증설이 정점에 달하는 2032년 3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.
- 그러나 앞으로 신규 계약 수주 등이 지속 성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.

기사

CNBC: House Speaker Johnson says he hopes AI guardrails are ‘voluntary’ amid Congress inaction
연방 하원의장 "AI 규제, 강제보다는 자율 준수 방식 원해"

- 연방 의회의 인공지능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, 연방 하원의장은 AI 가이드라인은 민간의 자율적인 준수 방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.
- 업계 경영진들이 AI 기술의 파괴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적 규제를 촉구하고 있으나, 의회의 입법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.
- 특히 AI가 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, 의원들은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.

기사

CNNBusiness: Nvidia launches new tool to keep AI agents from going rogue
엔비디아, AI 안전성 막는 '안전 플랫폼' 공개

- 엔비디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 에이전트의 돌발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보였다.

- 젠슨 황은 100여 개 파트너사와 함께 '엔비디아 오픈 에이전트 안전 플랫폼'을 출시했다고 밝혔다.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기업은 AI 에이전트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체 보안 정책을 강제 적용할 수 있게 된다.
- 젠슨 황은 AI의 사회적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, 성능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기사

[주택]

Reuters: US single-family home prices rise in July, FHFA says
미 단독 주택 가격 상승…내 집 마련 부담 가중

- 7월 미국 단독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.3% 상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.6% 올랐다. 매수 심리 위축으로 재고가 늘었지만 주택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.
- 여기에 미국·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미 국채 금리와 모기지 금리도 급등했다.
-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최고 7.03%까지 치솟아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.

기사

[KMI 공급망 브리핑]

- 중동 관련 이란은 미국이 조건을 충족해야 해협을 재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, 미·이란 양측은 28~29일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을 재개했다.
- 한편 이란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미 해병대원 8명이 부상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, 이란은 미국의 수중드론 2번째 나포를 주장했다. 미 해군은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를 중동에 추가 전개했다.
- 원유 수송 측면에서는 AIS를 끈 '깜깜이 유조선'들 덕분에 호르무즈 통과 원유 수송량이 전쟁 전 대비 60%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도됐다. 카타르에너지는 LNG 불가항력 선언을 최소 한 달 추가 연장해 11~12월까지 공급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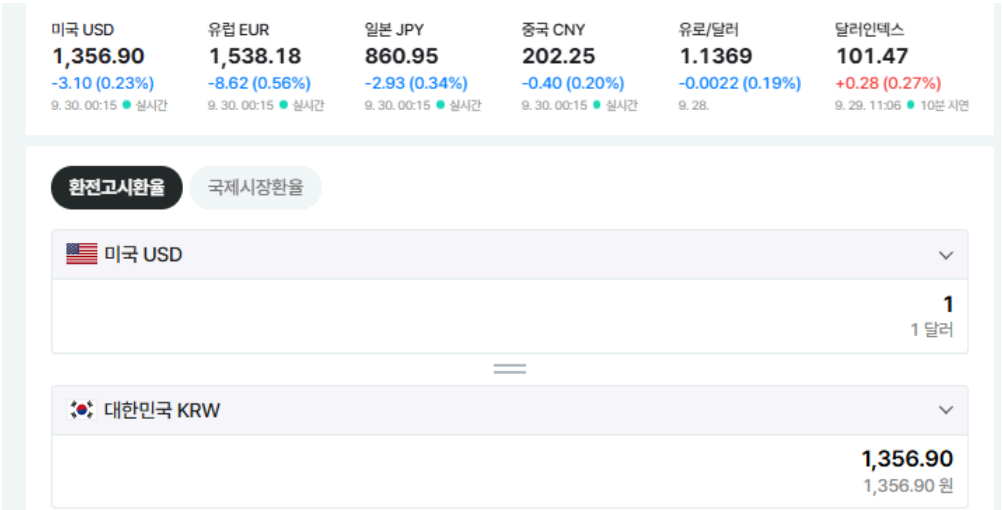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194.60	-287.1	-0.56%
US 500	7,671.80	-12.1	-0.16%
Dow Jones	51,300.07	-181.44	-0.35%
S&P 500	7,671.78	-12.15	-0.16%
Nasdaq	26,832.54	+12.16	+0.04%
S&P 500 VIX	15.94	-0.13	-0.81%
Dollar Index	101.22	+0.294	+0.29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-7/32	5.600	0.048
10-Year Note	4.625	-2/32	5.272	0.028
7-Year Note	5	-23/32	5.182	0.027
5-Year Note	5	-1/32	5.095	0.018
3-Year Note	4.375	0/32	5.030	0.012
2-Year Note	4.75	0/32	4.939	0.004
1-Year Bill	0	0/32	4.524	-0.001
6-Month Bill	0	0/32	4.425	0.019
3-Month Bill	0	1/32	4.195	0.033
1-Month Bill	0	0/32	3.940	-0.011

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